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8호 [주제 제25191호] 주제 105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領導에 밝은 앞날을 기약해준 세계사적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의 사변이였다.

대성공적인 발사와 같은 특대사 력사의 이날이 있어 우리 군대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끌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장군복을 누리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강산에 세차게 굽이치고있는 혁명은 력사의 온갖 도전에도 끄적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 떼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승

란생 일흔네돐을 성대로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겨레의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 있었다.

갈망속에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가 절처진 조선의 대동운이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가지 국사를 오직 장군님의

을 찾으시고 위대한領導자 리설주동지와 함께 위대한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끌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강대한 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에는 오직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본사정치보도반







# 태양조선의 새봄을 알리는 2월의 축포성

##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평양 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16일 저녁 주체사상탑이 솟아있는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언덕, 유휴교 등 수도의 곳곳은 주체의 우주주간의 주인인 크나큰 궁지를 만들고 2월의 축포가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중들의 가슴과 가슴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한데 지니고 백두광명성으로 편행 하시며 조국과 혁명, 시대와 민민앞에 영원불멸 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 철세의 애국자,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끌어넘치고 있었다.

20시 《축원의 뜻다발 드리운다》의 노래가 울려퍼지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무적

김정일의 정치군사 강국, 해보육국, 인풍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면 헤쳐주신 위대한 선군대에 양복에 드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춤모의 정인양 눈부신 불꽃기들이 축원의 불꽃마다를 절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을 존경하고 존엄과 존엄으로 높이 경애하는 김정일조선으로 세계만방에 빛내여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김정일동지께 예우를 보다 축복과 희망을 전해나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일동지에게는 백두의 뿐은 경신으로 온 냄새를 쟁그리며 불태우시며 이 땅 위에 백승의 력사를 안아오시여 태양조선, 태양인 죽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펼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주체워싱의 비행운을 아로새

긴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형형색색의 축포탄들이 터져올라 황홀함의 일만경을 펼치고 장쾌한 피성은 하늘땅을 친감하였다.

강장한 세계를 크나큰

격정속에 바빠보며 군중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시고 우리 당을 수령의 당, 자주시대의 강위력한 혁명

직임으로 강회발전시키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역년도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의 불같은 한생을 가슴뜨겁게 들이켜보았다. 백두의 뿐은 경신으로 온 냄새를 쟁그리며 불태우시며 이 땅 위에 백승의 력사를 안아오시여 태양조선, 태양인 죽의 존엄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경애하는 김정일, 김정일동지께 가장 드높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맷은 정을 퍼풀처럼 알고 어머니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것처럼 장군님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친한한 미래를 푸져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불꽃 출신인 『장군님을 품으니』,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싈다』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축포의 화광이 누비를 밟게 비치였다.

대를 이어 수명복, 장군복을 누리며 백두에서 개최된 조선혁명의 침로마파 강성국가건설

에 복종처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이 편듯 불꽃기들이 딱통적이라면서도 기록있지 아공을 페지르며 솟구쳐 올랐다.

천연민족의 조화를 부리는 열

광의 불보파, 오색찬연한 빛발들이 터져오르는 축포를 격정속에 바빠보며 군중들은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강성번영하는 김정일, 김정일동지로 세계만방에 빛내여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드높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눈부신 현실로 불꺼우시는 최재의 『전출명장을 모신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갖가지 불꽃들에 실려 봄에 오르고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소리와 군중이 더친한 호성이 수도의 하늘에 메아리며 비쳤다.

대를 이어 수명복, 장군복을

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궁지와 자부심을 대해주며 『발걸음』의 노래성률이 경축의 담화날가에 메아리쳤다.

기록된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친우지

의 불길놀이 조선로동당 제7

차대회를 향한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무령에 산악같이 맷내서 천만군민의 혁명열, 무쟁 열, 애국열을 배에 해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기치를 만드는 보검으로 억새끼를 들어쥐고 『광명성-43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색으로 충비의 5월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걸 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행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 강

성국가, 모든것이 흥하는 인민의 학원을 우리 손으로, 우리

의 힘으로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들이 정양의 밤하늘가를 더욱 빛내고 물들이었다.

2월의 하늘가에 터제오른 경축의 불보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흥비로서 천체인세 밭들어모시고 수령의 유흔관찰원, 당정책옹용전의 불길놀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무령에 산악같이 맷내서 천만군민의 혁명열, 무쟁 열, 애국열을 배에 해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나

가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

머니님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에

대한 충성을 힘차게 알려나가며

제7차대회를 기념한 모습들…

김정일동지의 불灭의 혁명업적을

을 향하여 흥들썩, 흥에 진해

# 충정의 꽃바다, 경축의 꽃바다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을 노래한다

제 20 차 김정일화 축전 장에서

## 태양의 축복 속에 더더욱 번영할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

위대한 선군대의 존함을 모시고 자주주제 인류의 마음속에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의 꽃바다, 태양의 꽃축전이 처음으로 진행된 때로부터 어느덧 스무번째의 날을 새겨 민족대의 경사스러운 평절인 광명성장을 맞은 내 조국의 2월을 더욱 환희롭게 해주고 있다. 2월의 훈장을 더욱 길게 해주며 상대하게 진행되는 제 20차 김정일화 축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세계 전진적인 민족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들이 합쳐져 꽂혀 펼친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위인정승, 위인홍보의 꽃축전이며 선군조선의 꽃은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대성적 측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領導 김정일동지를 천세 반세 높이 우러래 모시고 장군님의 구상과 원원대로 이 땅에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는 것은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이부이니 숭고한 도덕의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수만개의 꽃들이 피어나 새 나름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뿜어놓았으며 그 규모와 힘사를 자랑하는 수많은 꽃축전 회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꽂고려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는 여기서 인민무력부의 일꾼인 윤봉직동무를 뵙았다.

온실종업원들뿐만 아니라 인민군장병들이 한마음으로 축전 준비사업도 보강하면서 온실확장 공사도 동시에 내밀어 오늘과 같이 불멸의 꽃을 만발하게 꽂워낼 수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을 뜨거워 털어주었다. 자강력재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활짝 피어난 3만여상의 불멸의 꽃들로 위인정승의 대회원을 이루었다는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원회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것은 인민무력부와 외무성전시대였다.

불멸의 꽃으로 형상한 대형 꽃바구니를 중심으로 천여상의 김정일화로 배전배승의 기치인 고사령관과 당기리를 넓혀 우리 조국에 대한 큰한 공지와 자부심. 조국보위로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 끌어온 구호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례회를 질사유위한 부대장들의 불멸의 신념과 의지가 맥역히 넘쳐흐르는 전시대였다.

창판자들과 함께 축전장의 2층에 들어선 우리는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전시대 앞에 걸친 전면되는 내 조국의 치망한 현실을 조형적판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대들마다 조선로동당 제7차례회가 열리게 되는 뜻깊은 운동을 전제 없는 토목적성과로 및내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의지가 빽빽히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리상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여 현실로 꽂혀 남녀다라는 광발을 배경으로 펼쳐진 대외경제성과 경총지도국과, 봉화지도국, 학원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들과 『위대한 선군정지 만세!』

의 구호로써 행진을 이어가면서 꽂혀나가는 혁신의 힘을 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주의 후호전

과 조국통일위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엄격

나가는데서도 인민군대가 가장 서겠다는 불타는 일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만물과 함께는 조선의 불멸의 꽃으로 조선지도를 형상하여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의지를 잘 보여준 조국통일위원회전시대 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배려를 가슴깊이 전하는 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밀고 떠나는 혁신의 힘을 드리고 이로인 이 모든 자랑찬 성과를 보여주는 충현중앙상당제7차례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풀들이 축전장의 어떤 경적을 앤우리 우리는 축전장의 여름꽃을 돌아보았다.

선군조선의 자손과 권위, 강유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가 우주에 달고 쇠고의 수준, 쇠상의 문명을 향해 어제와 오늘에 다른 계전변되는 내 조국의 치망한 현실을 조형적판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대들마다 조선로동당 제7차례회가 열리게 되는 뜻깊은 운동을 전제 없는 토목적성과로 및내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의지가 빽빽히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리상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여 현실로 꽂혀 남녀다라는 광발을 배경으로 펼쳐진 대외경제성과 경총지도국과, 봉화지도국, 학원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들과 『위대한 선군정지 만세!』

의 구호로써 행진을 이어가면서 꽂혀나가는 혁신의 힘을 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주의 후호전

과 조국통일위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엄격

나가는데서도 인민군대가 가장 서겠다는 불타는 일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만물과 함께는 조선의 불멸의 꽃으로 조선지도를 형상하여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의지를 잘 보여준 조국통일위원회전시대 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배려를 가슴깊이 전하는 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밀고 떠나는 혁신의 힘을 드리고 이로인 이 모든 자랑찬 성과를 보여주는 충현중앙상당제7차례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풀들이 축전장의 어떤 경적을 앤우리 우리는 축전장의 여름꽃을 돌아보았다.

선군조선의 자손과 권위, 강유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가 우

나가는데서도 인민군대가 가장 서겠다는 불타는 일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만물과 함께는 조선의 불멸의 꽃으로 조선지도를 형상하여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의지를 잘 보여준 조국통일위원회전시대 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배려를 가슴깊이 전하는 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행복을 이루는 혁명을 보위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